

# 오순절 성령체험과 그 완성에 대한 소고

김 삼 환\*  
Sam-Hwan Kim

## 〈목 차〉

〈서 론〉

〈결 론〉

〈본 론〉

- I 오순절 성령체험의 본질
- II. 현대 오순절주의에 대한 반성적 숙고

## 서 론

우리의 논의를 위해 우선 오순절 성령체험은 문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체험하는 것인지가 분명히 말해져야 한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체험하는데 그치는 체험을 참된 의미에서의 성령체험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서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성령체험의 시작이나 한 부분은 될지언정 그 자체로 완성된 성령체험이 될 수는 없다. 참된 의미의 성령체험은 은사체험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영혼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체험

---

\* 역사신학 (Ph. D.)

까지 이루어져야 완성이 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란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에 기초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하나되는 체험이다. 이 체험은 영혼의 의지가 성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성령과의 의지적 합일체험으로서 일종의 건전한 신비체험이다. 이 체험을 신비한 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체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초월자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이다. 결국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은 성령체험의 시작이요 한 부분이며 성령체험의 완성은 성령과 영혼이 하나되는 신비체험에서 이루어진다.

## 본 론

### I. 오순절성령체험의 본질

#### 1. 오순절성령체험은 그 자체로 완성된 체험이 아니다.

1-1. 오순절성령체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체험과 성령의 인격에 대한 체험을 심화시킴으로써 참된 성령체험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흔히 말해지는 오순절성령체험이 그 자체로 완성된 체험이라면 성령의 은사 및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 맺어져야 하며 성령과 영혼과의 신비적 연합의 체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순절성령체험은 주로 은사체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사체험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또한 은사체험과 성령 곧 은사를 주시는 자의 인격에 대한 체험은 다르다. 성령의 인격에 대한 체험이란 성령과의 단순한 인격적 교제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격적 교제가 깊어지고 심화되어진 사랑의 합일이 바로 성령의 인격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며 이러한 체험은 곧 경험중의 경험이다.

## 1-1-1. 체험은 경험 중의 경험으로서 경험의 깊이를 나타낸다.

체험이란 단순한 경험이 아니다. 단순한 경험은 주체가 객체를 대상화하여 주체의 방식으로 객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일어난다. 영국 경험론이 존재론적인 깊이를 다루지 못하고 결국 인식론을 이루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험은 일단 감각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데 영국 경험론은 바로 이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물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그러나 체험은 내적인 경험으로서 경험이 내면화된 것이며 감각적인 것의 음영이 사라진 내적 상태와 연관되는 말이다. 이러한 내적 상태에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극복되어 있으며 객체를 대하는 주체의 태도가 더 이상 주체 일방적일 수 없다. 경험이 이러한 내적 상태의 경험으로 깊어진 것이 바로 체험이다. 현상학에서 다루는 경험은 바로 이러한 내적 상태에서의 경험 곧 체험을 의미한다.<sup>1)</sup> 이러한 체험에서의 인식은 곧 존재론적인 인식이며 존재론적인 인식은 인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성격 규정하는 인식의 틀과 상관한다. 따라서 체험된 것은 인식된 것과는 달리 인식 내용의 차원에서 비판되거나 대체되지 않는다. 체험된 것은 인식의 틀을 이루는 관심이나 이데올로기의 차원에 버금하는 것이며 관심이나 이데올로기가 비판되고 대체되어지는 차원에서만 비판되고 대체되어진다.<sup>2)</sup> 이는 체험된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인식이나 판단에 의해 대체되거나 비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체험은 또 다른 체험으로서만 비판되며 대체된다.

1) 현상학적 경험에 대해서는 Edmund Husserl, *Idées directrices pour une phénoménologie*, tr. Paul Ricoeur (Paris: Gallimard, 1950)를 참조할 것.

2) 체험된 것의 깊이는 관심의 깊이와도 같다. 체험하게되면 관심을 두게 된다. 관심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인식의 내용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결정짓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Jürgen Habermas, *Connaissance et Intérêt*, tr. G. Cléménçon (Paris: Gallimard, 1976)를 참조할 것.

## 1-1-2. 그렇다면 오순절성령체험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교리가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이차적으로 정리되어지면서 교리가 태동한다. 일단 태동된 교리는 체험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체험을 제어한다. 교리와 달리 체험은 계속 체험을 부른다. 체험은 하나의 체험에 제한되지 않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체험이 하나의 특정 체험으로 제한된다면 체험은 자신의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 되며 자신의 기반조차 와해시키게 된다. 교리로 시작한 믿음 또한 체험의 활력이 필요하지만 체험이 그 믿음의 유지에 본질적으로 요청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험으로 시작한 믿음은 체험이 체험을 계속해서 부를 때에만 본성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경험보다 쓰여진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려고 했는데 이는 결국 경험을 초월하는 체험의 깊이를 간과한 것이고 또한 쓰여진 말씀과 진정한 말씀으로서 성령과 동일한 본체를 지니고 계신 말씀과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오순절 신앙은 종교개혁신앙의 문자적 경계를 초월하는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 체험이 체험을 부르지 못할 때 교리화되고 정형화된 믿음이 체험적 신앙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는 오순절성령체험의 완성이 아니라 오순절 신앙이 프로테스탄트적 개혁신앙이나 가톨릭적 교리신앙 내부로의 윤패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적으로는 오순절 신앙 자체가 지닌 역동성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순절 교인이 타 교회로 이적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순절 신앙의 근원적이고 원천적이며 발원적인 규범은 말씀과 동일한 본체를 지니신 성령에 대한 체험이다. 따라서 쓰여진 말씀만을 모든 신앙체험의 근원적, 원천적 규범으로 삼는(sola scriptura) 개혁주의와 다르며 쓰여진 말씀 외에도 교회사적 전통을 근원적 규범으로 삼는 가톨릭시즘과도 다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오순절성령체험을 완성시키는 것은 또 다른 성격의 체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체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체험이요,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의 심화에

서 우리나라오는 성령과의 사랑의 합일체험이다.

## 2. 오순절 신앙의 규범은 성경의 문자를 가능케 한 성령의 영감과 교회사적 객관성이 되어야 한다.

오순절 신앙이 성령체험을 출발점으로 강조한다고 해서 오순절 신앙이 성경의 문자, 즉 쓰여진 말씀이나 역사적 전통에 대해 어떤 규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순절체험신앙은 성경의 문자를 신앙체험의 본질적 규범으로 삼지는 않으나 현상적 규범으로 삼고 있다. 즉 성경의 문자를 가능케 한 성령의 영감을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개신교정통주의는 사실상 성경의 문자를 본질적 규범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순절체험신앙은 체험이 본성적으로 지닐 수 있는 唯我論적 주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 점에서 신앙체험의 교회사적 객관성을 하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즉 오순절성령체험은 20세기에 해성같이 나타난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이른 비 역사 즉 초기기독교공동체시대부터 시작하여 교부시대와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을 거친 후 종교개혁시대에서의 성령의 역동적 사역 등을 통한 교회사적 운동이며 현대 오순절 운동은 이러한 교회사적 운동으로서 성령사역이 그 모습을 급격히 드러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성령사역이 지닌 역사적 객관성은 교리체계들간의 상이성과 배타성 그리고 모순점들을 그 근원에서부터 통전적으로 수용하며 극복해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성령운동이 주도하는 교회는 제 3의 교회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회 전통에서 발견되는 역사적 객관성은 오순절 신앙에 대한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가톨릭은 이러한 교회전통을 근원적인 규범으로 삼고 있지만 오순절 신앙은 이를 추후 심사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성령체험을 가능케 하는 성령께서 교회전통을 이루어 내는 것이지 교회전통이 성령체험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계 2,

7), 성령이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전통이 하나의 규범으로 상정되지만 근원적인 규범으로 상정될 수는 없다.

### 3. 오순절성령체험을 완성시키는 또 다른 성령체험은 오순절적인 요소를 본질적으로 완성시키는 체험으로서 영혼이 성령의 인격에 대해 가지는 사랑의 합일체험이다

성령의 인격에 대한 사랑의 합일체험은 유한자가 초월자와 함께 하나되는 신비체험으로서 초월자와 존재론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자신을 순종시켜 말김으로써 성령과의 의지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온갖 종류의 범신론이 거부되고 또한 신학과 인간학의 이원론이 거부된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고 성령의 인격은 우리가 단순히 교제하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되는 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4. 오순절 신앙은 성령체험의 완성을 지향하는 체험인가?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본질적으로 성령체험의 완성을 지향하는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지닌 오순절 신앙이 성령체험의 완성을 지향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인지 아니면 오순절 이데올로기에 그치는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오순절 신앙과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구분하고 이 둘의 특성과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4-1. 오순절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은 오순절 이데올로기이다.

오순절 운동은 열정적이고 빠르게 전파되며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동반하는 성령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sup>3)</sup> 이러한 특징이 바로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요인들이 된다.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오순절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 준다. 정체성이란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변별해주는 특성인데 성령의 은사와 열정은 현상적 차원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오순절 신앙의 정체성은 주로 외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오순절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게 되면 오순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되는 배타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케 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교리이다.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오순절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일을 최우선 관건으로 삼기 때문에 오순절 교리를 우선적으로 확립하려 한다.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확립된 오순절 교리에 대하여 어떠한 타협도 하려하지 않는다. 교리에 대한 변경이나 타협은 정체성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오순절 이데올로기가 오순절 이데올로기로서만 존재하려고 할 때는 결국 교리지상주의로 귀착될 수 있다. 이는 체험의 교리에 대한 우위를 그 근본 출발점으로 삼는 오순절 신앙의 본질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4-2.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파괴하지 않으나 오순절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오순절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오순절 신앙의 唯我論의 본질을 형성한다. 또한 오순절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성령의 은

3) 이러한 오순절 운동의 여러 특징에 대해서는, W. J. Hollenweger, *The Pentecostals*(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8)을 참조할 것.

사에 대한 체험이 필수적이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은 외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만큼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오순절 신앙의 외적 현상을 담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세력이다. 그러나 참된 오순절 신앙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교리지상주의로 환원될 수는 없다. 성령체험은 유일회적인 체험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유토파적인 체험<sup>4)</sup>이며 체험은 체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교리지상주의적 폐쇄성을 탈피케 한다. 그런데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파괴하지 않는다. 만일 오순절 신앙이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파괴한다면 오순절 신앙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외적 현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신앙이 모종의 확신이나 신념 또한 내적 특성의 하나로서 담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5)</sup> 그러나 참된 신앙은 자신의 내면적 신념이나 확신 및 정체성의 확립이나 유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 5, 6)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자신의 정체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타자성(otherness)도 함께 고려함으로써만 가능해 진다. 타자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인식에 있어서 주체의 再現前化(representation)를 통한 일방적 파악과 인식(apprehension)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타자성이 처음부터 고려된 인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까닭에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지만 정체성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즉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파괴하지 않으나 오순절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초

4) 유토파적(불어로 utopique)이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곧, 지나간 것과 현재의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갱신하여 새로움을 획득하는 자기갱신의 영성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에 대해 Gabriel Vahanian, *Dieu et L'Utopie: L'Eglise et la technique*(Paris: Cerf, 1977)을 참조할 것.

5) 이에 관해서는 Ludwig Feuerbach, *L'essence du christianism*, tr Jean Pierre Osier, Paris, Fran ois Maspero, coll. "Théorie", 1973을 참조할 것.



월한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이념적인 것으로서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한계와 특성에 의해 생성된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생성은 근본적으로 신학적이지 않고 인간학적이다. 인간학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초월적이지 못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데 초월이란 곧 이러한 한계성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계성의 극복이란 모종의 완성을 의미한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초월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것인데 참된 신앙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를 결국 완성시킨다.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파괴하지 않고 오순절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며 완성시키는 것이다.

#### 4-3.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을 도모케 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타자성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행위에 도입함으로써 정체성에만 머무르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배타주의를 극복한다. 또한 정체성을 하나의 표현적 언명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교조주의인데 이 교조주의란 문자주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자주의는 해석을 위한 상징의 기능을 거부하는 것이며 어떤 인식에 대한 메타인식 즉 인식의 존재론적 기반을 거부하는 것이다.<sup>6)</sup> 문자주의와 배타주의가 신앙의 핵심을 이루게 될 때 그 신앙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에 반해 사랑이란 상징의 기능을 모든 인식과 해석체계에 도입하여 문자주의의 천박함을 극복해내는 것이며 타자성을 인식과 행위에 도입함으로써 정체성에만 머무르는 배타주의를 극복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신앙이 지니고 있는 배타주의와 문자주의적 교리주의가 극복될 수 없다.

6) 상징의 기능과 상징의 존재론적 인식론과의 본질적 연관에 대해서는 Paul Ricoeur, *La Symbolique du mal*(Paris: Aubier, 1960)을 참조할 것.

4-4.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타율적이며 율법적인 의식의 잔재를 지니고 있으나 오순절 신앙은 근본적으로 신율적이며 은혜의 사역을 추구한다.

오순절 이데올로기가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할 때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배타주의와 문자주의적 교리주의에 함몰되고 만다. 이러한 함몰의 경우는 오순절 이데올로기가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와 연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순절 신앙이 이데올로기적인 늪에 빠져 있으면 온갖 종류의 율법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구약의 역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앙이 얼마나 율법적인 것과 연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하심과 더불어 은혜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구약의 율법주의가 극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문자적 교리주의에 매달리고 있음은 그들의 신앙이 한갓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오순절 신앙은 성령의 역동성에 의해 항상 선도되어지는 신앙이다. 성령의 역동성은 율법주의, 교리주의, 문자주의를 극복한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즈음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이다(행 10참조). 베드로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속된 것을 먹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한 율법의 규정을 초월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율법의 파괴도, 율법에 머물러 있음도 아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이다(마 5, 17). 타율적인 율법의 완성은 자율이 아니라 신율이다. 신율은 자신을 스스로 초월하는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율의 깊이를 나타낸다.<sup>7)</sup> 신율과 연관된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와 연관된

7) 자율의 깊이 즉 신율에 대해서는 Paul Tillich, *Philosophie de la religion*, tr. F. Ouellet(Genève. Labor et Fides, 1971)을 참조할 것.

다는 의미이다. 오순절 이데올로기가 극복되어짐으로써 오순절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율법 아닌 은혜와 연관을 맺게 되는 일이다. 오순절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율법주의의 잔재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한다.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타율성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사람들을 타율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자율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과 성찰을 통한 신율적 행위로 나아가게 해 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이 지니고 있는 자아비판의 기능이다.<sup>8)</sup> 자아비판의 기능이야말로 신율을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도 상통한다. 삼위일체란 동일한 한 신적 실체 안에서 삼위가 서로 이루어내는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의 형상이 우리 속에도 주어져 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때 이루어지는 ‘나와 나와와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율법을 극복하고 완성하는 은혜와 연관되며 우리로 하여금 신율적인 자아비판과 반성의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

4-5.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반상식적이지요, 반이성적일 수 있으나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초월상식적이지요, 초월이성적이다.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성경문자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즉 성경의 문자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 해석은 성경에 쓰여진 문자의 배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8)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독교신앙이 지니고 있는 소크라티즘의 요소에 대해서는 E. Gilson, *L'Esprit de la philosophie médiévale*, 2 d., Paris, 1948, chap. xi를 참조할 것.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영감됨을 실제적으로는 거부하게끔 유도한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순절 이데올로기가 문자주의에 고착되어 있을 때 성경말씀을 가능케 한 성령의 영감은 배제되는 현상이 성경해석에 있어서 나타나게 된다. 성령의 영감을 배제하여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전수하려할 때 근본적으로 반상식적, 반이성적인 차원이나 이와 동일한 차원인 상식적, 이성적인 차원에서만 의미를 파악하려하게 됨으로써 영적 차원의 깊이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영적 차원의 깊이에서 성경을 해석하려하며 이러한 해석은 상식과 이성을 파괴하지 않으나 상식과 이성의 차원에 머무르지도 않는 초월상식과 초월이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4-6.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하나님과의 신비적 합일에 대한 영성의 깊이를 무시하지만 오순절 신앙은 그러한 영성의 신비한 깊이를 추구한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변화를 거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의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한 바의 본질에 고착되어 있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과의 신비적 합일에 대한 존재의 그리움과 추구를 가능케 한다. 하나님과의 신비적 합일은 하나의 유토피적 체험이며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체험이다.<sup>9)</sup>

**5. 영혼이 사랑으로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발원적인 요소는 바로 지성이다.**

9)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추구한 영성가들을 교회사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Charles André Bernard, *Le Dieu des mystiques I, II*(Paris. Cerf, 1994)을 참조할 것.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열망인데, 인식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열망되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지성적 인식이 중요하다.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을 열망하지 않고서는 성령과의 의지적 일체를 이룰 수도 없다. 여기서 열망이란 어떤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인 의미이다. 왜냐하면 의지적 일체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이 성령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즉 수동적인 받아들임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의지적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점에서 수동적 열망은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수동적 열망을 발원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앎의 요소 즉 지적인 요소이다. 수동적 열망은 또한 초월인간학적 열망이다. 자신에 대한 초월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르고자하는 수동적 열망이야말로 초월인간학적 추구를 열매맺게 한다. 초월인간학적 추구를 가능케 하는 가장 발원적인 심적 요소도 지성적 깨달음이다. 아직 감정과 의지가 가 닿지 않는다 해도 은혜와 양심을 통해 지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또한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앎(notitia)과 승인(assensus)과 신뢰(fiducia)<sup>10)</sup> 가운데 가장 발원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앎의 요소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롬 10, 17).

## 6.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의 주정주의는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을 교회사적 정통체험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한다.

슬라이엘마허의 경우에서와 같이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여주는 주정주의적 입장은 앎의 요소에 대한 일차적 중요성을 간과하

10) Richard M.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Grand Rapids: Baker, 1985), pp. 115-116.

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이 아니라 모종의 우주적 영과의 심정적 합일로 신앙을 이끌고 나아간다. 지성과 의지를 감정에 비해 이차적인 것으로 치부한 술라이엘마허의 입장은 가톨릭 시즘이나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스콜라적인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써 성령체험을 교회사적인 정통체험으로 연결 시키는데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술라이엘 마허의 우주적 보편자에 대한 절대 의존감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한 사랑의 감정과도 무관한 것으로서 하나의 존재론적 감정이다.<sup>11)</sup>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성령체험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성령체험이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정통적인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성령체험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 만일 오순절 성령체험이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정통적인 성령체험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라면 오순절 신앙은 이천년에 걸친 교회사적 믿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신흥종교의 믿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오순절 이데올로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데올로기를 형성케 하는 특정 문화와 사회적 요소에만 경도되어짐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객관성을 유지케 하는 정통체험에 대한 지적 요소는 간파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오순절 체험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을 유지케 하는 성령체험의 역사적인 객관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또한 담지해 나아가야만 한다. 이 점에서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에서 보여지는 주정주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통 개신교 주의와 가톨릭시즘에서 나타나는 지성적 요소에 대한 강조를 받아들이고 있다.

## 7.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을 주도하는 지성적 깨달음과 의지적 추구는 수동적이고 注賦的인 묵상에서 본질적으로 이루어진다.

11) Cf. Friedrich Schleiermacher, *The Christian Faith*(Edinburgh: Clark, 1928), p. 12.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은 영혼이 행하는 수동적 묵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선물이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되어 성령과 의지적 일체를 이루게 되는 까닭이다. 주부적 묵상안에서 얻게되는 하나님 체험은 영혼이 주객도식 내에서 그 분에 관해 스스로 짜낸 모든 개념들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여기에서 인식론적 주객도식이 초월된다. 영혼이 주객도식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해 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표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주체가 이루어 낸 표상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표상적 주관주의에서 온갖 종류의 이성적 사변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오순절 신앙을 형성케 해주는 근원적인 세력은 성령체험인데 성령체험은 하나의 존재론적인 체험으로서 인식의 틀이 되며 근거가 되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sup>12)</sup>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인식의 틀과 근거의 변화인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변화는 표상적 주관주의에서 나타나는 온갖 종류의 사변주의를 극복한다.

##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인격을 주객도식 내에서 실체화하고 대상화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시작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영혼의 사랑이 주객도식 내에서 대상화된 것을 향하지 않을 때에는 인격적 상호 교제라는 사랑의 근본 본질이 애당초 파괴되기 때문이다. 영혼의 사랑은 과정적인 것으로써 처음부터 주객도식을 초월한 존재자체를 향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온갖 종류의 존재론적 정적주의 및 범신론이 극복되고 성령의 역동성이 유지된다. 만일 오

---

12) 인식을 위한 존재론적 근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Hans 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Tübingen: J. C. B. Mohr, 1960) 및 Martin Heidegger, *L'être et le temps*, tr. Rudolf Boehm et Alphonse de Waelhens(Paris: Gallimard, 1964) 등을 참조할 것

순절 신앙이 처음부터 주객도식을 초월하여 주체의 주객도식 내에 성령의 인격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령과의 연합이 아닌 혼합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며 범신론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은 인격적 상호 교제에 의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지 성령과의 혼합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 9. 하나님의 아가페가 지닌 과정적이고 무한확장적 성격에 따라 영혼과 하나님과의 의지적 합일 또한 가능하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그 본성상 일회적일 수 없고 과정적이다. 또한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무한확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간의 죄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작용케 하는 것도(롬 5, 20) 하나님의 아가페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아가페의 성격은 영혼과 하나님과의 의지적 합일을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끔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영혼이 깊이 깨달을 때 영혼은 비록 어둠 속에 처해 있다하더라도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 무엇을 행하려고 서두르지 않게 된다. 영혼은 일단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쓸쓸함과 고독과 메마름과 빈곤에 휩싸인 그대로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러한 어둠과 메마름 속에 처해 있는 때가 바로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때이기 때문이다.<sup>13)</sup> 결국 하나님과의 의지적 합일은 은총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가 흡수되어질 때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지적 합일은 존재론적 합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양자는 합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흡수라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13) 토마스 머튼, *명상이란 무엇인가?*, 오 무수 역(서울: 가톨릭 출판사, 1986), p. 76



10. 이렇듯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의 체험은 모순적 입장들을 극복하고 통전적으로 수용해 낸다. 결국 이러한 통전적 수용성에서 오순절성령체험의 완성은 이루어진다. 오순절성령체험의 시작은 하나의 외적 현상으로 탐지가 가능한 성령은사체험이며 이제 그 완성은 성령과의 신비적 합일체험이다. 완성은 시작을 파괴하는 개념이 아니며 시작이란 본질상 그 자체로 완성되어진 개념이 아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은 성령의 선물에 대한 체험이요 성령과의 신비적 합일체험은 성령의 인격에 대한 체험이니만큼 이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양자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과의 신비적 합일체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을 파괴하지 않고 그 체험에 머무르지도 않으며 그 체험을 초월하고 완성시킨다. 쓰여진 말씀이나 체험의 전통을 오순절 신앙의 발원적이고 근원적인 규범으로 두고자 할 때 나타나는 문자주의나 전통주의에서는 오순절성령체험의 유토피성이 근본적으로 파괴되어야 할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쓰여진 말씀이나 체험의 전통을 배후에서 가능케 하는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신앙의 발원적이고 근원적인 규범으로 상정될 때는 오순절성령체험의 유토피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체험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다. 오순절성령체험을 과정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체험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완성된 체험으로 보는 것은 성령 자체와 성령의 은사를 혼동하는 것이고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과 성령에 의한 능력수여를 혼동하는 것이 되며 더 나아가 참된 의미의 오순절 신앙을 오순절 이데올로기로 환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 II. 현대오순절주의에 대한 반성적 숙고

오순절성령체험의 본질이 위에서와 같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는 현대오순절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성적 숙고를 행할 수 있다.

# 1. 현대오순절주의에서의 성화와 능력에 대한 신학적 입장정리는 오순절성령체험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현대오순절주의는 성화와 능력에 대한 입장정리에 있어서 난관을 겪고 있다. 웨슬레안적 오순절주의자인 팔함과 성화에 대해 케직운동의 입장을 따르는 오순절주의자인 덜함의 논쟁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sup>14)</sup> 덜함은 오순절성령체험을 그 자체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과(성화) 성령에 의한 능력수여를(능력) 상호 혼동하고 있는 까닭에 성화를 사실상 무시한 채 능력만으로써도 성령체험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했다. 팔함은 성화뒤에 능력이 와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순절성령체험의 시작과 완성의 순서를 뒤바꾸어 놓게 되었는데 이는 오순절성령체험의 완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까닭이다. 현대오순절주의의 이러한 맹점들은 성령체험에 대한 교회사적 숙고를 통해서 오순절성령체험의 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획득하게 될 때만 그 극복이 가능하게 된다. 오순절성령체험이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오순절성령체험의 시작은 성령은사체험이요 그 완성은 성령과의 인격적합일체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을 의미하는 성화는 사실상 완성의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당연히 성령의 은사체험에 의한 능력의 나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시작은 완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성화는 능력의 완성으로서 실질적으로 추구된다. 덜함은 이러한 실질적 추구를 사실상 포기하였는데 그것은 오순절성령체험을 그 자체로 완성된 것으로 봄으로써 오순절성령체험 안에서의 시작과 완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까닭이다. 팔함 역시 오순절성령체험을 그 자체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오순절성령체험의 시작과 그 완성에 대한 과장적인 논구를 곁하고 있다. 그 까닭에 성화 뒤에 능력을 주

14) 이에 대해서 Donald W.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Grand Rapids: Zondervan, 1987), pp. 19-22를 참조할 것.

장함으로써 사실상 능력의 나타남은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2. 오순절성령체험의 완성인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 체험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영혼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바 영혼의 참된 사랑을 위해서는 知, 情, 意의 균형 잡힌 역할이 필요하다.**

성령과의 인격적 합일체험은 다름 아닌 사랑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영혼의 체험이다. 성령은 완전한 사랑의 영이라는 성령의 본질 그 자체에서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인격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왜냐하면 지성적 앎이 없이 참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감정적 마음의 움직임 없이 참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지적 실천 없이 참된 사랑은 또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이 완전한 사랑의 영이니 만큼 그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또한 완전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이다. 이러한 완벽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너무나도 불완전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나 사랑을 구성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사랑의 본성이 지니는 상호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즉 성령과 우리의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호적 관계성을 사랑의 본성은 저버릴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작용 또한 성령의 의지와 똑 같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영혼의 작용을 위해서는 지, 정, 의의 균형 잡힌 역할이 필요하다. 현대 오순절 주의는 지적인 요소가 지닌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 결론

오순절성령체험이 시작과 완성이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체험을 과정적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합목적적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순절성령체험은 하나의 합목적적인 방향이 없는 체험들의 집합으로 이해될 수는 없으며 성령의 뜻을 개인과 사회, 교회와 국가, 역사와 자연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합목적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순절성령체험이 성령의 은사체험에 그쳐서는 안된다. 성령의 은사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자 곧 성령의 뜻을 이루는 목적에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순절성령체험은 결국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 즉 오순절성령체험은 성령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향하는 영혼의 합목적적인 여정이 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 Dayton, Donald W.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Grand Rapids, Zondervan, 1987.
- Feuerbach, Ludwig, *L'essence du christianism*, tr. Jean Pierre Osier, Paris, François Maspero, coll. "Théorie", 1973.
- Habermas, Jürgen, *Connaissance et intérêt*, tr. G. Cléménçon, Paris, Gallimard, 1976.
- Husserl, Edmund, *Idées directrices pour une phénoménologie*, tr. Paul Ricoeur, Paris, Gallimard, 1950.
- Hollenweger, W. J., *The Pentecostal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5.
- Ricoeur, Paul, *La Symbolique du mal*, Paris, Aubier, 1960.
- Schleiermacher, Friedrich, *The Christian Faith*, Edinburgh, Clark, 1928.
- Tillich, Paul, *Philosophie de la religion*, tr. F. Ouellet, Genève, Labor et Fides, 1971.
- Vahanian Gabriel, *Dieu et L'Utopie: L'Eglise et la technique*, Paris, Cerf, 1977.
- 토마스 머튼, 명상이란 무엇인가?, 오무수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6.